



눈, 코, 입 - 태양

1 가사보기

미안해 미안해 하지만 내가 초라해지잖아
Mianhae mianhae hajima naega chorahaejjana

빨간 예쁜 입술로 어서 나를 죽이고 가
Ppalgan yeppeun ipsullo eoseo nareul jugigo ga

나는 괜찮아 마지막으로 나를 바라봐줘
Naneun gwaenchana majimageuro nareul barabwajwo

아무렇지 않은 듯 웃어줘 네가 보고 싶을 때
Amureochi aneun deun useojwo nega bogo sipeul ttae

기억할 수 있게 나의 머릿속에 네 얼굴 그릴 수 있게
Gieokal su itge nau meoritsoge ne eolgul geuril su itge

널 보낼 수 없는 나의 욕심이 집착이 되어 널 가뒀고 혹시 이런 나 땀에 힘들었니
Neol bonael su eomneun nau yoksimi jipchagi doeeo neol gadwotgo hoksi ireon na
ttaeme himdeureonni

아무 대답 없는 너 바보처럼 왜 너를 지우지 못해
Amu daedam eomneun neo babocheoreom wae neoreul jiuji motae

넌 떠나버렸는데 너의 눈 코 입 날 만지던 네 손길
Neon tteonabeoryeonneunde neoui nun ko im nal manjideon ne songil

작은 손톱까지 다 여전히 널 느낄 수 있지만 꺼진 불꽃처럼
Jageun sontopkkaji da yeojeonhi neol neukkil su itjiman kkeojin bulkkotcheoreom

타들어가버린 우리 사랑 모두 다 너무 아프지만 이젠 널 추억이라 부를게
Tadeureogabeorin uri sarang modu da neomu apeujiman ijen neol chueogira bureulge

사랑해 사랑했지만 내가 부족했었나 봐
Saranghae saranghaetjiman naega bujokaeseonna bwa

혹시 우연이라도 한순간만이라도 널 볼 수 있을까
Hoksi uyeonirado hansunganmanirado neol bol su iseulkka

1 가사보기

하루하루가 불안해져 네 모든 게 갈수록 희미해져
Haruharuga buranhaejeo ne modeun ge galsurong huimihaejeo

사진 속에 너는 왜 해맑게 웃는데
Sajin soge neoneun wae haemakge unneunde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별을 모른 채 널 보낼 수 없는 나의 욕심이
Uriege dagaoneun ibyeoreul moreun chae neol bonael su eomneun nau yoksimi

집착이 되어 널 가뒀고 혹시 이런 나 땀에 힘들었니
Jipchagi doeeo neol gadwotgo hoksi ireon na ttaeme himdeureonni

아무 대답 없는 너 바보처럼 왜
Amu daedam eomneun neo babocheoreom wae

너를 지우지 못해 넌 떠나버렸는데
Neoreul jiuji motae neon tteonabeoryeonneunde

너의 눈 코 입 날 만지던 네 손길
Neoui nun ko im nal manjideon ne songil

작은 손톱까지 다 여전히 널 느낄 수 있지만
Jageun sontopkkaji da yeojeonhi neol neukkil su itjiman

꺼진 불꽃처럼 타들어가버린
Kkeojin bulkkotcheoreom tadeureogabeorin

우리 사랑 모두 다 너무 아프지만 이젠 널 추억이라 부를게
Uri sarang modu da neomu apeujiman ijen neol chueogira bureulge

나만을 바라보던 너의 까만 눈 향기로운 숨을 담은 너의 코
Namaneul barabodeon neoui kkaman nun hyanggiroun sumeul dameun neoui ko

사랑해 사랑해 내게 속삭이던 그 입술을 난..
Saranghae saranghae naege soksagideon geu ipsureul nan..

너의 눈 코 입 날 만지던 네 손길 다
Neoui nun ko im nal manjideon ne songil da

여전히 널 느낄 수 있지만 꺼진 불꽃처럼
Yeojeonhi neol neukkil su itjiman kkeojin bulkkotcheoreom

타들어가버린 우리 사랑 모두 다
Tadeureogabeorin uri sarang modu da

너무 아프지만 이젠 널 추억이라 부를게
Neomu apeujiman ijen neol chueogira bureulge

2 문법학습

-아/어/여 줘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할 때 사용함

부탁할 때 말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좀'을 함께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친구나 나보다 아랫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에는 반말을 사용하니까 '-아/어 줘'라고 말하지만 나보다 윗사람인 경우에는 '-아/어여 주세요'라고 말해야 합니다.

예문을 좀 더 살펴볼까요?

- 1) 가: 마이클, 혹시 내일 시간 있어? 내가 내일 이사를 하는데 짐이 너무 많아서 나 **좀 도와 줘.**
 나: 그래, 그럼 내일 몇 시까지 가면 돼?
 가: 아침 일찍 **와 줘.** 이삿짐을 싸야 하거든.
- 2) 가: 나오미, 오늘 마가렛을 만날 거야?
 나: 응, 왜?
 가: 마가렛이 지갑을 우리집에 놓고 갔어. 마가렛에게 지갑 **좀 전해 줘.**

-던

과거의 일을 회상해서 이야기할때 사용함

마치 과거의 장면들이 지금 눈 앞에서 펼쳐지는 것처럼 생생하게 떠오를 때에 사용하는 문법표현입니다.

- 1) 가: 고향에 오랫동안 가지 않아서 고향 생각이 많이 나겠어요.
 나: 네, 특히 친구들과 자주 **가던** 식당도 생각이 많이나고, 가족들과 자주 **먹던** 고향 음식도 생각이 많이 나요.
 가: 마이클 씨는 아직도 헤어진 여자친구를 그리워하는 것 같아요.
- 2) 나: 네, 아직도 잊을 수 없는 날이 있는데 여자친구와 처음 데이트 **하던** 날이에요. 여자친구와 처음 손 잡고 **걸던** 날에 눈이 많이 왔었어요.

3 단어학습

마지막/아무렇지 않은 듯

‘마지막’은 시간의 끝을 의미합니다. 이제 헤어지는 오늘이 끝이니까 ‘마지막’이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부탁은 ‘아무렇지 않은 듯 웃어 줘’입니다. ‘아무렇지 않다’는 어떤 변화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아무렇지 않은 듯’은 ‘어떤 일도 없는 것처럼’을 의미합니다.

바라보다

노래에서는 연인의 눈을 ‘나만을 바라보던 너의 까만 눈’이라고 회상하고 있습니다. ‘바라보다’라는 것은 어떤 대상을 똑바로 향해서 볼 때 ‘바라보다’라고 합니다.

속삭이다/만지다

‘속삭이다’는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게 작은 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지다’는 손을 대어서 주무르거나 쥐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연애할 때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속삭이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이나 손을 ‘만지겠지요’ 노래 속 화자도 그때의 그 연인의 눈, 입, 손을 그렇게 회상하고 있습니다.